

'5월 輓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만가)

"거룩한 희생을 기리 추모하고, 완전한 천도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5·18 광주민중항쟁 26주년 기념식이 끝난 18일 오후 2시 국립 5·18민주묘지. 기념식에 참석했던 유족과 참배객들이 대부분 빠져 나가 을씨년스런 묘역에 억울하게 산화한 이들의 열반(涅槃)을 염원하는 열불과 만가(輓歌)가 울려 퍼졌다. 살풀이 춤사위도 묘역을 감쌌다.

5·18 희생자 영령의 왕생극락(往生極樂)을 비는 원불교 광주·전남교구의 '5월 희생자 영령을 위한 원불교 천도제'가 이날 200여명의 원불교 교무들과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천도제는 지난 88년 5월 27일 항쟁 이후 처음으로 정부 허가 아래 봉행된 이후 18년간 계속되고 있다.

천도(薦度)란 죽은 자의 명복을 빌고 극락세계나 천상에

민주묘지 천도제 영령 위로 진상규명 시급히 이뤄져야

태어나도록 기원하는 불교 의식이다.

하지만, 이날 유족들이나 천도제를 올리는 이들은 답답하기만 한 표정이었다. 5·18의 총체적인 진상이 규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영령들이 편히 눈을 감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묘역의 하늘도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찌푸린 모습이었다.

5월 유족과 지역민들은 "26년이 지나도록 5·18의 총체

적인 진상이 규명되지 않아 영령들에게 고개를 들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최초 발포 명령자와 지휘계통의 핵심 ▲정확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수 ▲암매장 장소 ▲헬기 기총소사 ▲화염방사기 사용 등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규명된 것이 없는 탓이다.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정수만 회장은 "5·18 광주민중항쟁은 광주시민들이 군부독재 타도와 민주주의를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났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학살됐다든 사실 말고는 정확히 딱 맞아 떨어지는 진실은 아직까지 하나도 밝혀진 게 없다"면서 "5·18 진상규명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5월 만가(輓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영호남이 화합 합창

5·18 이모저모

5·18 광주민중항쟁 26주년 기념일인 18일 광주 곳곳은 추모 분위기가 절정을 이뤘다.

이날 오전 10시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3부요인, 여·야 국회의원과 유족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6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원불교 광주·전남 교구는 이날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천도제를 열어 5·18 영령들의 넋을 달랬고, 오후 3시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에서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80년 5월 당시의 민족민주화 성취를 재연했다.

17일 도착한 부산시립합창단은 오후부터 광주시립합창단과 연습을 했고, 18일 당일에는 보라색 벨벳 의상을 입고 나타났는데 "영령들에게 경건함을 보이기 위해 고른 색상"이라고.

경북대생 "내년에도 오겠다"

○대구 경북대 역사학과 학생 20명이 "지역은 다르지만 영령들의 뜻을 기리는데 동참하고 싶다"며 단체로 5·18 민주묘역을 참배.

몇년 전부터 광주를 찾고 있다는 경북대 역사학과 학생들은 17일 광주에 도착, 전남대~광주역~도청 앞~조선대~옛 MBC~5·18 묘역에 이르는 길을 걸으며 '금남로 정신'을 체험.

곽규환(22·3년)씨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금남로를 찾아 직접 걷게 됐는데, 그 날의 정신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후배들과 광주를 찾을 예정"이라고.

피켓 시위 등 한때 어수선

○기념식이 시작되기 전 국립 5·18 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대학생 6명이 '군대를 파견하는 행위는 광주와 평택이 다르지 않다'며 피켓 시위를 벌여 경찰에 연행.

또 기념식 도중 5·18구속부상자회 회원인 조모(48)씨가 "민주당을 찍지 말자"며 고함을 질러 대통령 경호원들이 서둘러 제지하는 등 한때 기념식장이 어수선.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살레시오고생 종이학 참배

○광주 살레시오 고등학교 학생회 간부 12명은 이날 오전 기념식에 앞서 종이학 2만 마리를 들고 윤상원 열사의 묘지를 방문, "선배님의 명복을 빌다"고 참배.

이 학교 학생회 부회장 정연태(18)군은 "학교 선배인 윤 열사께서 항쟁 당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들었다"며 "민주와 평화, 인권에 기여한 선배님의 뜻을 이어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

'그날이 오면' 등 3곡 불러

○기념식에서 광주시립합창단과 부산시립합창단원 80명이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반주에 맞춰 '그날이 오면'과 '바위처럼' '임을 위한 행진곡' 등 3곡을 부르며 화합을 다짐.



다시 온 '그날 그 함성'

17일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5·18 광주민중항쟁 제 26주년 전야제'. '2006님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전야제에는 공연팀과 시민 등 3천여명이 모여 '80년 5월의 정신'을 기렸다.



보고싶다, 아들이!

5·18 광주민중항쟁 26주년 기념식이 열린 18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한 유족이 아들의 사진을 어른자리며 오열하고 있다.

사진=최현배 기자

"극락왕생 빕니다"

'원불교 광주·전남교구'와 '5·18 민중항쟁 제26주년 기념행사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교무와 신도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희생자 영령을 위한 원불교 천도제'를 가졌다.



가수 안치환·심수봉, 국악인 안숙선 씨 등

유명 음악인 광주로...광주로...

5월 음악제 총출동

가수 안치환, 심수봉, 국악인 안숙선씨 등 유명 음악인들이 '오월의 뜨거운 현장' 금남로에서 열린 '광주 오월음악제'에 총출동했다.

18일 오후 6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린 '2006 광주 오월음악제-오월에서 통일로' 무대에 선 것이다.

특히 10·26 당시 현장에서 대통령 암살사건을 겪었던 가수 심수봉씨는 5월 관련 행사에 처음으로 초청돼 관심을 모았다. '그때 그 사람'과 '무궁화'를 부른

심씨는 "광주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기쁘게 출연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무궁화'는 지난 1984년 방 송 활동 금지가 풀리며 직접 작사·곡한 곡으로 그가 특별히 애착을 갖고있는 노래다.

'민중 가수' 안치환씨는 '광야에서' '사랑이 꽃보다 아름다워' 등을 열창했다. 자리에 모인 시민들은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 이날 음악제에는 가수 바비 김, 한대수, 이상은, 김용우씨 등 가수 외에도 줄타기 무형문화재 김대균씨와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출연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이제! 이쯤이다! 무방안을 선택한다면 큰 손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

오네뜨빌

온림동 오네뜨빌 잔여세대 분양중

57·52·50·48평형 / 타일주차장

문의전화: 225-0070

MAHALLI

들어오세요!

마지막 분양 - 34평형

지금까지는 高분양가로 가는 중 그러나

2년 전 분양가로 내 집 마련하세요!!

문의전화: 555-7818